

13억 인구, 떠오르는 양계 강국 예고

- 소비층 확대로 발전 가능성 무한대 -



▲ VIV INDIA 2007 박람회에 참가한 일행과 함께
뒷줄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세웅 대표(서울무역), 업체상 팀장(농협사료), 김삼수 부장(농협사료), 신영근 대표(엔케이 생명과학), 장성영 기자(대한양계협회), 이종웅 사원(대한양계협회), 이양의 사장 내외(금강농장,양계), 이정학 사장 내외(서해농장,양돈), 최보영 이사(서울무역,수의사)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삼일간 인도 뉴델리 프라가티 마이단 전시장에서 '인도 국제 축산 박람회(VIV India 2007)'가 개최되었다.

동물약품, 최신 기자재, 사료 및 첨가제 관련 업체 등 10여개 국가에서 참가한 가운데 본 기자도 참관하여 '제 1회 VIV 인도 축산 박람회'를 맞이한 전시장 현장과 더불어 앞으로 중국에 이어 제 2의 축산 유망지로 물망에 오르는 인도의 양계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VIV India 2007

인도는 82%이상이 힌두교인으로 종교적인 특성상 소고기를 제외한 닭고기 등의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는 이미 지난해 8월 27~29일간 뉴델리에서 ILDEX India 2006을 개최한 바 있으며, 제 1회 VIV India 2007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축산업의 유망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에 초점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나라는 인도(41개 업체)를 포함해 중국(13개 업체), 프랑스(12개 업체), 이탈리아(7개 업체), 한국, 미국,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 10여개 국가에서 총 115개 업체가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자국 출품업체 35.6%, 해외출품업체 64.4%로 나타났으며, 총 17,000명의 전문 바이어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가량이 양계산업에 관한 제품이 출품되면서 전문바이어들이 큰 관심을 갖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지난 VIV 태국 박람회에 이어 이번 박람회에서는 '예방으로 질병에 최대한 대처하고, 효율을 높여 생산율을 증가하며, 소비자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에 초점을 두어 개최되었



박람회 전시관 모습



▲ SKYLARK사의 NUTRICH 인도의 양계 계열사로 원종계 종계, 실용계 사업을 한다. HACCP 인증을 받아 닭고기 부위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선별기 회사 '에그텍' 참가로 현지인 및 방문객의 관심을 받았다.

고, 사료분야, 시설환경분야, 가축육종분야, 계란생산분야, 도축 및 육가공 분야, 축산관련 지식산업 분야 등 다양하게 참여했다.

참가업체 중 우리나라의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과 같은 'SKYLARK의 브랜드 NUTRICH' 라는 인도의 양계 계열사가 참가했다. 수도인 델리 인근에 위치한 이 업체는 안전한 생산을 위해 무항생제를 생산을 원칙으로 하바드(Hubbard) 원종계로부터 종계, 실용계까지 사업하면서 도계과정 전 공정라인에 HACCP 인증을 받아 날개, 다리, 뼈를 발라낸 정육 등 부위별로 판매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란선별기 회사 MOBA(네덜란드 본사)는 중량별 분리뿐만 아니라 갈색란과 흰색란을 구별하는 시스템을 소개했다. 빛을 투광시켜 난각색의 농도에 따라 10가지로 구분하여 분리할 뿐 아니라 혈란과 파란을 선별하는 Automatic Detector System을 선보였다. MOBA는 국내 (주)가농인터내셔널을 통해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VIV 인도 2007 박람회는 참가 업체부스나, 전시 규모 등 다른 나라에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중국과 함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임을 예고하는 박람회였다.

VIV 축산박람회 계획

앞으로 VIV 인도 박람회는 격년제로 개최될 계획으로 2009년 가을에 열릴 예정이다. VIV 축산박람회는 인도(뉴델리)를 이어 유럽(러시아-모스크바, '08. 5.27~29), 중국(베이징, '08. 10.20~22), 아시아(태국-방콕, '09.3.11~13), 러시아('09.5), 터키(이스탄불, '09.6.25~27)로 세계 축산업의 기술 교류와 발





▲ 니플, 산란계 케이지, 내장적출 시스템 업체 등 최신양계 기자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국내 양계농가 및 관련인들의 관심으로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인도의 양계산업

흰색 계란 선호, 소비자가격 개당 약 62원

인도는 갈색란에 비해 흰색란이 많이 소비되고 있다. 사실 인도 토종닭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갈색란이지만, 교잡종으로 인해 현재에는 흰색란이 대부분이다. 인도 도심지 이외에 시골로 접어들면 토종계란으로 갈색란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 (좌)일반재래시장에서는 30개들이 한판씩 판매(한화 약 1,870원), (우)뉴델리 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6개입 갈색란(한화 약 520원) 아직까지는 냉장보관 시스템이 미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산란계는 대부분 교잡한 품종(Hybrid Hen, 연평균 260개 생산)으로 중량은 거의 비슷하고, 개당 가격은 2.50루피(한화 약 62원)로 생산성이 적은 갈색란(3.50루피=한화 약 87원)에 비해 저렴하여 흰색란을 선호하는 편이다.

재래시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30개들이 한판씩 판매하고, 일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6개, 12개(30루피=한화 약 750원)로 포장된 계란을 판매한다.

계란가격은 2년 전(2루피=한화 약 50원)에 비해 25%가량 상승하면서 계란소비가 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도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토스트 판매점처럼 계란요리를 즉석해서 판매하는 이동 판매점에 있다. 'EGG ROLL', 'DOUBLE EGG', 'DOUBLE CHICKEN ROLL', CHICKEN MOMO-STEAM/FRIED' 등의 다양한 메뉴를 간식처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격은 15~45루피로 한화 375~1,125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닭고기, 소비자가격 kg당 약 2,000원

전문 축사에서 생산되는 닭의 경우는 양계전문사료를 쓰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닭고기 - 판매될 닭들과 다른 한쪽에는 부유물들로 쌓여있다. 우리나라 1960~70년대 식으로 비위생적인 면이 보여졌지만, 현재 계열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다양한 소비자층이 형성될 것으로 예견해 이런 개선점들이 보완 된다면 앞으로 축산 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60~70년대 수준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도계하여 판매하는 재래시장 형태가 대부분이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커다란 케이지 안에 10여 마리의 닭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소비자가 닭고기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닭털과 내장 부유물을 분리해 생육을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닭고기 가격은 우리나라와 같이 마리당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생체를 조각내 kg당 80루피(한화 약 2,000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여름에 비해 겨울에 닭고기와 계란 소비가 증가한다.

혹서기 4~6월 중에는 높은 습도와 함께 기온이 섭씨 50℃까지 상승하면서 피부병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자제하는 이유도 있다. 그 외에 축제기간인 음력 9월 1일부터 한달간 힌두교인들이 육류를 먹지 않는 종교적인 풍습으로 닭고기, 계란 소비가 감소한다고 한다.

주식에 빠질 수 없는 메뉴



인도인들은 밥이나 빵과 함께 삶은 계란 또는 야채를 넣은 오믈렛을 아침 식사로 주로 먹는다. 그들의 식사에 빠질 수 없는 카레는 소고기 대신 부위별로 조각낸 닭고기를 함께 조리해 주식으로 먹는다.

상류층 이상은 매일 계란과 닭고기를 섭취하지만, 중산층의 경우, 계란은 보통 일주일에 1~2개, 닭고기는 1주일에 1번 정도 섭취하고, 이 이하의 층은 일년에 몇 번 먹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주식에 빠지지 않을 만큼 닭고기와 계란을 자주 먹는 상류층이 있지만, 심한 빈부격차로 인도 일인당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1/4배에도 미치지 못한다(소비량은 1인당 닭고기 2kg/1년, 계란 55개/1년이다). 하지만, 앞으로 종교의 융화와 함께 매년 1.44%씩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인도는 축산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 보여지며, 더불어 축산 생산 및 기술에 있어 발전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여겨진다.

대규모 축산 소비시장 형성할 것

인도 양계산업은 현재, 계란 생산량 연 300억개, 육계 생산량 연 4억수로 최근 육계 20~25%, 산란계 10~15%로 평균 15~20% 생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인도 닭고기 생산량은 220만톤(한국:59만톤), 소비량은 219.9만톤(한국:52.7만톤)으로 우리나라의 4배의 수준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타국에 비해 축산업 단지 조성은 미약하지만, 우리나라의 30배 이상의 국가 면적(316만km²)과 20배 이상의 인구수를 보유한 점을 짚어본다면, 앞으로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나라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현지에서 매 식사마다 제공된 계란요리, 계란스크램블과 삶은 계란



취재 | 정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